

고흥군 올 벼 2기작 재배 면적 4배 확대

같은 논에서 벼농사를 두 번 짓는 벼 2기작(二期作)이 올해 고흥에서 대규모로 실시된다.

고흥군 동강면 일대에 대규모 간척지를 보유하고 축산업과 함께 순환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죽암농장(대표 김종욱)은 지난 20일 1만3200㎡의 논에 포트옥묘 기계 이앙기를 이용해 극조생종 '기라라 397호' 품종 벼 첫 모내기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빠른 것으로 지난 2월 12일 법사를 파종해 37일 만에 '포트옥묘 기계'로 모를 심은 것이다. 포트옥묘는 모 한 포기 한 포기가 포트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계로 모내기를 할 때 뿌리 손상이 적고 옥묘기간이 길어 추위에 강하며 활착이 빨라 수량이 20% 정도 증수된다.

죽암농장 극조생종 첫 모내기
1만3200㎡→5만3000㎡로
농가 소득모델 발굴 박차

이번에 모내기를 한 벼는 수확시기가 빨라 벼 이삭이 나온 후 날씨가 좋다면 7월 20일경 수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햅쌀이 추석(9월 27일) 이전에 소비자의 밥상에 오를 수 있고, 선물용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죽암농장은 나머지 잔여면적 3만9800㎡에 대해 오는 4월 1일까지 기상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모내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죽암농장은 일 년에 두 차례 재배하는 '벼 2기작'을 목표로 재배면적을 지난해 1만3200㎡(3990평)에서 올해 5만3000㎡(1만6000평)로 4배 확대해 고흥 쌀 이미지를 한층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서 죽암농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벼 2기작 노지재배에 성공했다.

지난해 3월 25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극조생 품종인 '기라라 397호' 모내기를 한 후 7월 23일 1기작으로 수확한 뒤 다시 2기작으로 극조생 '조평벼'를 7월 28일 모내기에 115일 만인 11월 19일 수확했다.

1기작 '기라라 397호'의 조곡량은 10a(300평)당 530kg, 2기작 '조평벼'는 500kg

으로 조사됐다. 2기작은 벼이삭이 나온 출수(9월 20일) 후 급격한 일교차로 잘 여물지 않은 미등숙립(未登熟粒)이 발생해 1기작 수확량 대비 5.7% 감소했다.

고흥군은 올해 '비전 5000' 소득모델 창출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과 적기 영농지원책으로 못자리 상토공급 ▲옥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고령농민을 위해 자동화 옥묘장 지원 ▲각종 영농자재 적기 공급 등을 추진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첫 모내기 성과가 좋을 경우 2기작 재배면적을 확대해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시키고, 농가의 실질적인 '비전 5000' 소득모델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군 죽곡면 태평마을 귀농·귀촌인 가구 모습.

곡성군 귀농·귀촌 두달만에 96명 유입

올 목표 300명 32% 달성

곡성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곡성군 2015년 귀농·귀촌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62세대 96명이 곡성으로 귀농·귀촌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거주지별로는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27세대, 광주권 18세대, 전북 8세대, 경상권 6세대, 제주도 2세대, 충청권 1세대로 다양한 지역에서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정착한 지역은 삼기면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산면 16명, 곡성을 15명, 석곡면 12명, 오곡면 8명, 옥곡면 7명, 겸면 6명, 입면 5명, 고달면 3명, 목사동면 3명, 죽곡면 1명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인 수(300명) 목표 대비 32%를 이미 달성해 이보다 훨씬 많은 귀농·귀촌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위해 택지(빈집·빈터), 농지 정비구축, 지역 주민들과 소통강화, 집담이행사, 마을별 '멘토의 집' 운영 등 다양한 정착지원책을 펼치고, 초기 정착시 어려움을 완화 상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취약한 귀농·귀촌에 대한 '도달 솔루션'(Total solution)을 마련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7122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진입하고, 인생 이모작 등 새로운 삶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문의(061-360-7471)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군 내년도 예산 신청 해양수산 사업

69개 사업 예산 1167억원 의결

고흥군은 최근 수산조종위원회를 열고 어업인과 수산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신청 받은 2016년도 해양수산 분야 69개 사업 예산 1167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69개 사업의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는 국비 698억원과 도비 17억원, 군비 239억원, 자부담 213억원이다. 군은 국비와 도비에 대해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사업비 605억원)보다 도서개발 등 11개 분야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193%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주요 해양수산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어촌종합개발, 도서개발, 어항개발사업 ▲어업인의 편의시설 사업인 다목적 인양기, 다기능 부잔교 ▲소득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친환경 양식어장 정비사업 등이다.

심의 의결된 69개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사업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29일까지 구례 산수유 축제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만개한 산수유 꽃그늘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구례군은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를 주제로 21일부터 29일까지 산동면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대에서 산수유 축제를 연다.

구례 가야금대회 훈격 대통령상으로 격상

올해로 13회를 맞는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의 훈격(勳格)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는 (사)가야금 병창보존회(이사장 강정숙)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해 왔으나 지난 2012년 제 11회 대회부터 개최지를 구례군으로 옮겨왔다.

구례군은 '송만갑 관소리 고수대회'와 '대한민국 압화대전'에 이어 이번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의 대통령상 승격으로 세계의 행사에서 대통령 상을 갖게 됐다.

구례출신 가야금 산조 서경철(1911~1982) 명인의 제자인 강정숙(종묘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 이사장은 "스승의 고향에서 대회를 개최

하는 것만으로도 뜻깊은데, 훈격이 대통령상으로 높아졌다"며 "이 대회가 우리나라 국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산실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예향 구례'의 위상에 맞게 '구례 향토출품류'와 '구례 잔수농악'에 이어 '지리산 남악제'와 '호남 여성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초·중·고, 신인부 단체 및 개인, 일반부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보성 척령 딸기영농조합 농민청 '탑과채 프로젝트' 선정

재배기술·컨설팅 등 지원

보성군 별교읍 척령 딸기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농촌진흥청의 '탑과채(Top-果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별교 척령 딸기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총 1억원(국비 50%, 군비 50%)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지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의 재배기술 교육, 현장 컨설팅을 비롯한 생산된 과채에 대해 엄격한 선별 등 품질 및 유통관리를 받게 된다. <사진>

'탑과채'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탑(Top)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박과 딸기·토마토·참외·멜론을 크기, 당도, 과형, 과피색, 안전성 등 최고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해 선별한 과채류를 의미한다.

특히 탑과채 딸기는 품질 기준 무게 23~30g, 당도 11브릭스(Brix=당도 단위) 이상, 90%이상 착색,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 조건을 통과해야 탑과채 품질 인증 스티커를 붙여 시장에 유통된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탑과채 이식 단지, 탑과채(베)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딸기 품질을 더욱 높여 탑과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는 등 별교가 딸기 주산단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차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비즈니스호텔 W

광주 상륙!!

(구.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동역 확정
백운동가도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0)확보
백운동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9㎡)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9㎡)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9㎡)	비즈니스 호텔
5층 (1209㎡)	비즈니스 호텔
4층 (1209㎡)	비즈니스 호텔
3층 (1209㎡)	비즈니스 호텔
2층 (1209㎡)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509㎡)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치실, 한의원, 판매시설, 침차전문점
지하1층 (2708㎡)	스포츠및사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0㎡)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